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 광주 5성급 호텔 입점 불투명해졌다

#### 광주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선다?

광주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부지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됐던 '하얏트 호텔(5성급)' 입점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 4월 하얏트 호텔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시행사 SJG와 '농성동 주상복합-하얏트 호텔 입점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주거시설 외 업무동에 하얏트 호텔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다.

#### 불투명해진 입점 '감감무소식'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확인해 본 결과, 업무협약 등 진행 상황과 달리 하얏트 호텔 입점은 추진 중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호텔이 들어서기 위해선 시행사가 신고한 업무동이 설계 변경돼야 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요청도 없었다. 착공일이 오는 9월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발 단계서 입점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성동 주상복합-하얏트 호텔 업무협약 당시 시설 조감도. SJG 제공

#### "주변 교통 등 심의 과정 부담"

광주 서구 관계자는 "하얏트-시행사 측이 해당 주상복합을 호텔로 변경할 경우 주변 교통 심의 등 다수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에 종합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특급호텔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다.

#SnackNews #광주5성급호텔입점 #정성현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실천 현장 '빛고을노인타운'

기고

김용덕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민선 8기 광주시의 시정 목표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실천하는 생생한 현장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 철학은 '사회관계망 확장'과 '사람의 기본권 보장'인데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노대마실과 정책참여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실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광주사회서비스원 현장 대화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 철학을 사회관계망 확장과 사람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들과의 관계 확장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는 것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민선 8기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테스트베드로서 현장 실천 과제를 타운 주체들과 함께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의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일치되어야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시행 중인 대표적인 실천 과제를 꼽으라면 무엇보다 복지여행 플랫폼인 '노대마실'을 빼놓을 수 없다. 노대마실은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실버들의 여행 및 관광 전국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타운 곳곳에 스토리를 가미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해 타운 회원은 물론 실버 청춘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어 타운을 안내하기 위해 빛고을50+센터와 협업해 '은빛도슨트'를 양성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다.

두 번째는 공공정책 패넌 1000명으로 구성된 '빛타운 정책참여단' 활동이다. 빛타운 정책참여단은 말 그대로 각계 어르신 1000여명으로 패넌을 구성해 광주시의 주요 정책에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꾸린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단체 활동이다.

민선 8기 광주시의 주요 정책은 인공지능(AI)와 미래차 중심도시 구현, 복합쇼핑몰 3중 세트 건설,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으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많다.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의제들을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빛타운 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생각을 의제와 정책화하는 빛타운 정책참여단은 타운이 추구하는 관점은 어른, 즉 '선배시민'의 모델이기도 하다.

타운은 이밖에도 활동하고 성장하면 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액티브시니어 걷기지도자 양성, 다양한 생각들이 공공의 의제로 구현되는 빛타운 홀미팅, 소외된 시민들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자원군인 선배시민봉사단과 사회공헌캠프단, 81개 150개 반의 노년 사회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현장 사례를 만들고, 전국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5년 역사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대한민국 노인복지 1번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했다. 관광, 견학, 벤치마킹 대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즐겨찾는 명소가 된지 오래다.

최근 국내 유수의 일간지와 경제지에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반영해 '노인의 천국'이라고 극찬했다. 특히 규모의 복지를 증명하였고 어르신들의 친교와 배움, 학습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소개해 주목받았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앞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실천 현장이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나아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선배시민의 길을 걷는 '실버 청춘들의 천국'이란 명성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교육부가 이르면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로 통합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모습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쯤 확정될 전망이다. 정책 추진에 앞서 영유아 자녀의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된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중 하나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안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월드플레이의 '탄소 중립' 콘서트

영국 록밴드 월드플레이가 '친환경 콘서트'를 개최해 화제다. 월드투어 한 번당 25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월드플레이의 공연장 전력은 태양광 발전기와 이동식 배터리를 이용해 조달한다. 특히 관객이 뛰는 압력을 전기로 전환하는 특수 바닥재와 자전거 발전기를 설치해 관객이 직접 공연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관객들이 뛰거나 자전거를 밟으면 한 회차당 평균 17kWh의 전력을 만든다. 이는 에어컨 10시간 가동 시 소비 전력과 맞먹는다.



훈련병 '얼차려' 금지

국방부가 훈련병의 군기훈련에서 체력 단련 중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속칭 '얼차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간병의 경우 개인의 신체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의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훈련을 집행할 때는 횟수와 휴식 시간을 명확히 한다. 지휘관도 병사의 경우 중대장급 이상이, 간부의 경우 영관급 이상이 지휘관을 맡아 관리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와 중목, 방법, 복장 등을 결정한다.



'MADE IN 광주' 전기차 캐스퍼 2천만원 전망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2000만원 초반대에 구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캐스퍼 EV는 기존 캐스퍼 내연기관보다 길어진 전장과 넓어진 전폭으로 '소형차'로 분류됐다. 1회 충전 이동 거리는 315km다. 현대차는 차량 가격을 2000만원 후반대로 추측하고 있어 예상 금액대로 출시된다면 광주에서는 소형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해 2000만원 초반대에 전기차 캐스퍼를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영암 기준 최대 1000만원 증액에 구매가 가능하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아쿠아플라넷63'과 '63아트'의 폐관일인 30일 서울 영등포구 아쿠아플라넷63을 찾은 시민들이 인어공주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1985년 문을 연 63씨월드(현 아쿠아플라넷63)는 한국 최초 아쿠아리움으로 다양한 해양생물 관람은 물론 각종 체험과 공연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의 사랑을 받았다. 1992년에 시작한 인어공주 공연은 국가대표 출신 싱크로나이즈드 선수들이 수족관 안을 유영하는 파격을 선사했다. 동화 속 장면을 연상케 하는 수준급 공연은 매년 큰 호응을 받았다.

아쿠아플라넷63이 떠난 자리는 2025년을 목표로 준비 중인 '포피두센터 한화 서울' 개관을 계기로 공간 리노베이션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